支部通信

會員의 自負心갖고 公園운동펴야

七甲山支部 11月28日 가을會員모임

七甲山지부는 지난 11월 28일 오후6시 청양읍내 백마식당에서 회원 14명이 모인 가운데 가을철 회원 단합모임을 가졌다.

朴七星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립공원협회회원의 자부심을 갖고 칠갑산의 애호활동은 물론 「서산해안」등 가까운국립공원의 보전을 위한 계도활동도 소홀히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車敬煥사무국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이날 초청참석자인 청양군 건설과 배병무계장으로부터 「七甲山공원 개발의 전망」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김천호씨와 전영철씨의 입회소개 ▲단합을 위한 선진 공원지부 시찰여행 ▲등산로 정비에 협력하여 자연훼손을 방지하기로 ▲서울거주 향토출신 회원과의 친선모임 ▲칠갑산장까지 편도포장이 완공된후 지부운영위원들이 각기관장을 초청하여 七甲山보호와 이용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北漢山 西部支部 간담회 개최

支部長 보선 못하고 對話의 자리마련

전지부장(故金斗圭씨)의 별세로 공석중인 지부장 선출을 위한 본회 北漢山국립공원 서부지부의 임시총회가 지난 10월 11일 상오11부터 대서문쪽 만부장 계곡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16명밖에 모이지않아 성원미달로 간담회만 갖고 산회했다. 동지부의 全基福사무국장과 부지부장, 운영위원이 주동되어 소집한 이날 모임에는 관리공단 서부관리소장을 대리해서 박영덕운영과장도 참석했는데 본회 吳判龍사무국장은 모처럼의 모임이니 참석 회원이나 번영회인사들이 평소 궁금한 것을 질의토록하여 국립공원지정의 취지등을 설명 공원관리의 협조를 바랐다.

번영회인사와 일부회원들은 언제 집단시설지구가 확정되는지 항상 不安하게 살고 있음을 토로하고 자리세문제, 서울자가용차들이 쓰레기는 공원에와서 버리는 방지책, 위락시설이 완성될때까지 노약자를 위한 天幕을 묵인해주고 대신 부근의 청소들을 전담시키는 등의 행정의 묘(협력체제)를 다해줄것을 바랐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해방후 이승만대통령이 대서문복원때 이곳을 돌아보고 이곳 주민들이 화목을 팔아 생활한다는 사실을 듣고 유원지를 만들어 생활토록한데서부터 자신들이 산림보호와 청소등으로 자연을 보호해왔다는 자부심을 갖고있었다.

小白山 北部 創立위해 全力

準備委員長에 文明述會員 委囑

本會 李洛善會長은 지난 7月 6日 前任 權商睦會員과 협의끝에 宋鍾博회원(榮州商議會長)을 本會小白山南部支部(慶北榮豊郡)創立 準備委員長으로 委囑된바 있었는데 지난 12月 9日 小白山北部 支部(忠北丹陽郡)創立準備委員長에 文明述회원(東光産業(株)代表理事)을 委囑하여 兩支部의 會員確保등 준비가 完了되면 거의 같은 時期에 創立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것으로 期待되고 있다. 文明述 小白山北部支部 창립준비위원장은 조기창립을 위해 모든 준비를 다할 것은 물론 각계각층의 지도급인사를 망라하는 강력한 지부가 되도록 기초를 튼튼히 하겠다고 포부를 피력하였다.

八公山支部 創立總會는 明春으로

大邱는 국립공원 운동의 요람지가 돼야

현재 회원이 50명을 넘어선 八公山을 중심으로한 본회지부의 창립총회를 12월중으로 가질 예정이었으나 지부중견회원들의 요청에 따라 '89년초에 개최키로 했다. 대구지역은 주왕산과 경주국립공원을 비롯하여 가야산·소백산·월악산·속리산등 국립공원에 둘러싸여 있어 공원운동이 전국 어느곳보다 효과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野生鳥는 自然의 노래